

# 상해에 불어온 ‘빙설스포츠’ 열풍



2024년 7월 26일, 상해 요설빙설세계 오로라 마을을 걷고 있는 관람객.

/ 신화사

빙설스포츠의 열풍이 상해에도 불어오고 있다. 빙설 소비의 새로운 씨나리오가 확산되면서 ‘차가운’ 빙설 자원이 계속하여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스키를 타러 왔어요.” 요설(耀雪) 빙설세계를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은 “스키 슬로프(雪道)가 매우 전문적”이라며 “중국 여행에서 가장 먼저 체

험한 프로그램이 바로 스키”라고 말했다. 상해요설부동산회사 왕지군 부사장은 “차이나 트래블(中国游)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본, 한국,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빙상자전거, 설국썰매, 플라잉 스노 글라이더(飞雪滑翔机)… 올 음력 설 요설빙설세계는 새로운 단장을 마

치고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특히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스키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반 스키어들에게 기존의 스키학교 전용 슬로프(그린웨이)를 개방하기도 했다.

왕지군은 “상해에서 빙설스포츠의 열기를 여실히 실감했다.”며 “음력 설 기간 하루 평균 8,000명(연인원, 이하 동일)이 넘는 관광객이 요설 리조트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

어 “상해의 지역에서 온 관광객수는 15% 증가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방문객수가 무려 1만명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해 서회(徐汇) 빙강(滨江)에 있는 한 야외 아이스링크장.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사자춤, 스케트를 탄 ‘재물신’이 홍보 나눠주기 등 이벤트가 펼쳐진 이곳은 많은 인파로 붐볐다. 한 관계자는 “음력설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는 700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며 “남방지역에서 빙설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동식 아이스링크장은 단순한 스포츠 공간을 뛰어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교의 장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빙설스포츠에 대한 교육적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상해비양빙상스포츠센터에서는 10명의 코치가 50여명의 수강생을 이끌고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강습을 진행했다.

상해성양체육문화발전회사 운영총감 마상우는 “지난해 비양빙상스포츠센터는 스포츠·교육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상해 시내 11개 중학교에서 2만 5,00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상해시빙설스포츠협회 소정명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60만여명 이던 상해의 빙설스포츠 참여 인구는 2021년에 280만명, 2024년에는 452만명으로 늘어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신화넷



2024년 11월 5일, 해남 삼아국제면세점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

/ 신화사

## 해남 시내 면세점, 음력설 매출 근 21억원

해남성 해구세관이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1월 28일—2월 4일) 처리한 면세 쇼핑액은 20억 9,400만원에 달했다. 해구세관에 따르면 면세품 구매자는 24만 500명(연인원)에 달했으며 1인당 8,706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력설 기간 해구와 삼아 등 지역의 면세점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음력설 특수를 잡기 위해 각 면세점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중면 삼아 시내 면세점의 경우 포인트 사은품 증정,

추가 적립, 추첨 등 행사를 개최했으며 각 플랫폼에서는 할인쿠폰을 발급했다.

세관은 면세점 입점 회사의 재고 압박을 줄이고 연휴 기간 면세품 품질을 막기 위해 전문팀을 편성, 24시간 통관 업무를 진행했다. 또 여행객 정보 대조 시스템과 구입 취소 신청 앱을 개발해 여행객이 스스로 정보를 변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 변경으로 인한 면세품 인도 및 취소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 신화넷

## 북경·상해·항항, 세계 10대 혁신 도시로

북경·상해·항항이 미국·영국·일본의 일부 도시와 함께 세계 10대 혁신 도시로 선정됐다.

심수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 청화대학 산업발전환경거버넌스연구센터, 연구논문 출판 및 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는 교육·과학·인재 협동발전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30개 도시를 놓고 심층 평가한 보고서

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글로벌 도시의 혁신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북경,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상해, 항항, 도쿄 등이 10대 혁신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문에서 보스턴, 런던, 항항이 톱 3으로 꼽혔다. 런던, 북경,

상해, 뉴욕은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이 비교적 균형있게 발전한 도시로 평가됐다.

혁신부문에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북경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제기반 강화, 산학연 통합 촉진, 과학인프라 확충, 지역간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생태건설 혁신 강화가 중국 도시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는

관건적인 돌파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인재개발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각각 5개 도시가 톱 10에 들었다. 중국 5개 도시는 북경, 심수, 항항, 광주, 상해 순이다. 그중 심수, 광주, 항항, 상해 등은 인재 잠재력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향후 인재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신화넷

## 북건 동석진, 글로벌 우산 브랜드로 ‘우뚛’

### 세계 우산 4개중 1개 생산

‘중국우산도시’로 불리는 북건성 진강시 동석진은 우리 나라 최대의 우산 제품 및 원·부자재 생산 수출 집산지로 전세계 우산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우산 완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약 4억 6,000만개, 생산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이 제품들은 세계 160여개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산도시’의 역사는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석진 사람들은 위탁 가공에 유리한 연해지역의 지리적 우위를 리용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우산을 만들어 시장을 개척해나갔다.

이후 일부 기업들은 설비 구매, 인재유치를 통해 규모를 갖춘 현대식 우산기업으로 성장했다. 외지에서 젊은 이들이 몰려왔고 우산 제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쌓은 후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면서 동석진에 창업 열풍이 불었다.

동석진의 우산이 국제시장에서 두



북건 우안납(优安纳) 우산테크회사 직원들이 생산작업장에서 우산을 제작하고 있다.

/ 신화사

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2003년 동석진은 중국경공업연합회, 중국일용품공업협회로부터 ‘중국우산도시’ 칭호를 획득했다.

하지만 우산 판매량이 아무리 좋아도 단순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판매로 인해 대부분의 리익

은 브랜드사에 돌아갔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동석진의 OEM 주문이 크게 줄었고 파산되는 공장이 대거 나타났다.

이때로부터 동석진 우산기업은 브랜드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자체 브랜드 개발과 수출을 위

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로씨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사무실을 열었다.

마침내 동석진 우산기업은 자신의 브랜드로 국제시장에 진출했고 글로벌 우산 6대 ‘중국브랜드’중 4개 이름을 올렸다.

동석진 우산이 시장에서 인기있는 비결로 품질을 꼽을 수 있다. 모든 우산은 출하전 2번의 비물 테스트, 300차례의 접었다 펴기 피로 테스트, 500차례의 스프링 테스트를 거친 뒤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 다수의 지표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2020년 현지 우산기업은 대학과 협력해 우산 제조의 10여개 복잡한 공정을 로보트로 대체하면서 업계 최초로 ‘블랙라이트공장’을 건설했다.

동석진의 우산기업은 475개, 특허 상품은 1,350개에 달한다. 기업당 평균 약 3개의 특허를 보유한 셈이다. 이들 기업은 지금도 반자동 우산, 자동 우산, 접기 편한 우산, 비를 맞으면 색상이 변하는 우산 등 혁신적인 우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신화넷

## 동북지역, 지난해 수출입 역대 최대치

지난해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동북지역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1조 2,500억원에 달했다. 그중 수출은 8.1% 확대돼 전국 수출 증가률을 0.1% 포인트 웃돌았다.

특히 동북지역 로공업기지의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이 수출입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정기계, 가전, 전기제어 설비의 수출은 2023년보다 각각 10.5%, 14.4%, 9% 증가했다.

빙설경제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스케이트와 스키 제품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화란

으로의 수출이 모두 배로 늘어났다.

세관총서 통계분석사 려대량 사장은 지난해 대외무역이 질적·량적 증가 목표를 실현했다며 동부, 중서부, 동북 지역의 감정이 발현되고 서로 보완되면서 수출입 증가를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동북지역의 수출입액은 34조 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확대, 우리 나라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7%로 꾸준히 ‘밸류스톤’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방을 이끄는 지역으로서 중서부지역의 수출입액은 7조 6,500억원에 달해 4%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 신화넷

## 광주 대외무역액 4년 연속 1조원 돌파

최근 광주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대외무역 규모는 1조 1,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 늘어난 규모로 4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그중 수출액은 7.8% 늘어난 7,005억 5,000만원으로 처음으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광주 대외무역의 강력한 경쟁력과 견실한 기초를 드러냈다.

/ 신화넷

## 지난해 천진통상구 통한 자동차 수출, 전년 대비 25% 증가

천진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천진통상구를 통해 수출된 자동차는 64만 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천진 신행세관은 자동차 수출 ‘올라인 예약+도착 즉시 검사’ 녹색 통로(패

스트랙)를 개설해 ‘대기 제로’, ‘지연 제로’의 통관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 신화넷

## ‘불야성’ 중경, 낮보다 뜨거운 야간경제



2024년 8월 23일, 여행객들이 중경시 강북구 가릉강변에서 흥애동관광지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 신화사

‘불야성’의 도시 중경시가 아름다운 야경을 발판으로 야간경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경시 강북 관음교(观音桥)로부터 남안 남빈로(南滨路)까지 이어지는 도심지역. 땅거미가 내려앉자 강변을 따라 불이 켜지며 활황한 야경이 펼쳐진다. 미식, 쇼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여행객들로 북적이면서 낮보다 더 활기찬 밤풍경이 연출된다.

산악지대의 지형적 특성상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들이 많아 ‘8D 판타지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중경은 우리 나라에서 야간경제가 가장 활발한 도시중 하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경시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총 1조 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소비의 대부분이 야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분주하게 낮시간을 보낸 중경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맛있는 음식과 쇼핑을 즐긴다. 량강(两江) 신구에 있는 립룡(琳龙) 전통시장내에서는 상인들의 호객소리와 각종 테마의 문화 창의 상품들이 여행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관음교 상권에 위치한 방원 라이브 실내시장의 사이버펄크, 이차원, 국조(国潮) 등 특색 테마 구역은 젊은이들의 야간 쇼핑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중경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투중(渝中) 구 산성골목은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거쳐 외지 여행객과 현지인이 즐겨 찾는 야간경제의 주요 목적지로 거듭났다. 밤이 되면 등롱이

차레로 켜지며 구불구불한 보행로를 밝힌다. 주민들과 여행객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도시의 온도를 만끽한다. 하루 평균 2만명(연인원, 이하 동일)이 넘는 사람들이 소비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중경 흥애동(洪崖洞)에선 매일 밤마다 알록달록한 등불이 켜지는 순간 일제히 탄성이 터져나온다. 이 광경을 놓칠세라 사람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른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클러스터로 선정된 흥애동관광지는 중경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해 음력설과 국경절 연휴 기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수는 모두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여름휴가 기간 하루 류동량이 약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오래동안 상점을 운영해온 상인 왕화군은 “즐길거리가 많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곳에 문화·관광·상업이 일체화된 종합 관광지가 조성돼 여행객들이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경 음식과 독특한 문화 창의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경시상무위원회 장용무 주임은 현재까지 5개의 시급 야간경제시범구가 건설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량질의 경제적인 소비 상품을 제공하고 든든하다고 국제적이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해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소비 환경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 신화넷